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1955~2007

김 연 각 | 서원대 정치외교학과

북한의 경우 아직도 통치 이데올로기가 중시되는 국가이고 따라서 통치 이데올로기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자체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드물고 설령 그런 연구라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글은 주체에서 선군에 이르기까지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형성, 변화 및 발전의 전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필자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판 한국민족주의 사상이라 할 주체사상은 여전히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 주장하며, 그 이후 제기된 선군사상을 포함한 여러 구호나 담론들은 주체사상을 대체할 만한 것이 못 되는 하위 담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 지도부는 군대의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 주체사상, 김정일, 선군

I. 서론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시대인가? 적어도 북한의 경우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 공식 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Friedrich and Brezezinski 1965, 88-89; Linz 1975, 191, 196; Schapiro 1972, 55). 금세기 들어 거의 유일한 전체주의적 수령 독재국가¹⁾로 남아 있는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고 또 끊임없이 체제 붕괴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과 함께 이데올로기나 정신적 자극을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1970년 이후 주체사상이다. 이때부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최고 강령이 되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김정일 1982, 1-2). 실제로 북한 사회가 이와 같이 주체사상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식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그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현재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변화 과정은 북한 정치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의미 깊은 단서와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널리 알려진 대로 주체사상은 1955년에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그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주체는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또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달라진 세계 질서에 직면하여야 했다.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의 소위 사회주의 형제 나라들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가 몰락, 해체, 혹은 붕괴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북한은 전례 없는 흉수와 가뭄 피해를 잇달아 겪었다. 그래서 많은 관측자들은 북한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지어 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데올로기에 국한해서 본다면 1990년대 이후 무수히 많은 구호, 개념, 사상, 철학 등이 등장하였다. 1980년대 말에 이미 나온 용어지만, 어느 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이 ‘진정한 민족주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철학’,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강성대국’ 등이 잇달아 등장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선군(先軍)이 북한 공식 매체들을 연일 수놓고 있다. 선군과 관련된 것만 해도 혁명적 군인정신, 선군혁명명도, 선군

1) 북한 국가 성격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2006; 최완규 2006 참조.

정치, 선군사상, 선군철학, 총대증시사상, 총대철학, 선군후로 등 여러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들이 기존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들일까? 그리고 그것들이 함축하는바의 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질문들이다.

그간 우리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체계적인 분석과 의미 있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들만 추려도 김갑식(2006), 김근식(2006), 오일환(2006), 이기동(2006), 정성장(2006), 이창헌(2006), 전미영(2006), 조영국(2006), 장달중(2004), 권오중(2002), 배성인(2001), 정우곤(2001) 등 다수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기동과 정성장 등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이데올로기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다룬 것이다. 이 점에서 우선 이데올로기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II장에서 상술하겠거니와, 북한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만들어지고 변화·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 발상, 담론 등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북한 측 논자들이 구사하는 화려하기도 하고, 동어반복적이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치하기도 한 수사(修辭)나 표현 기법에 현혹되어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때 북한의 공식 문헌들에 화려하게 등장한 ‘붉은기철학’ 같은 것은 지금은 이미 죽어 없어진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외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더러는 과대평가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예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선군사상이라는 것이 과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²⁾

그리고 이런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의 쟁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함께, 북한 측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애써 구분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사례도 있다(정성장 2006, 32-33). 주체사상과 김일성주

2) 예컨대 이기동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기동 2006, 126. 더 상세한 논의는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의는 '사상' 과 '주의' 라는 용어 차이만 있을 뿐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필자는 주체에서 선군에 이르기까지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형성, 변화 및 발전의 전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이데올로기 관련 담론의 형성과 변화의 패턴, 그리고 북한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수사나 표현 기법상의 특징을 다룰 것이다. III장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창시되고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된 주체사상을 다룰 것이고 IV장에서는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거나 김일성 사후에 새로 등장한 담론들을 특히 선군사상에 중점을 두어 다룰 것이다. V장에서는 전체 논의의 결론과 약간의 실천 관련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II. 예비적 고찰

1.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형성 · 변화 패턴

북한에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론화되고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최고 지도자가 연설이나 담화 등을 통하여 단순히 어떤 용어나 발상을 언급한다. 그러면 하위 논자나 이데올로그들이 그 중에서 어떤 용어나 발상을 골라 그것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살을 붙이고 정식화 체계화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성급하게 용어가 남용되기도 하고 그 기원을 가능하면 멀리 소급하기도 하고 기존의 권위 있는 이론이나 사상의 권위를 빌리기도 하고 그 발전이나 혁신 혹은 독창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에 이르면 최고 지도자 명의의 담화나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주체사상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유일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에 한 때 반짝하였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도 있다. '붉은기철학' 이나 '동지에철학' 이 그런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선군' 이다. 북한 측의 공식 매체들이 선군을 아주 자주,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남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군사상’을 포함한 선군 관련 담론은 이미 북한에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붉은기철학이나 동지애철학 같은 것들이 한 때 반짝했다가 사라져간 것에 비교하면 이것은 매우 긴 역사이다. 또한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군의 위상이 높아진 사실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볼 때도 선군은 탄탄한 자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에서의 주체가 처음 등장한 이래 근 3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교적 완성된,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런 저런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0년의 역사는 길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데올로기 내지 담론으로서의 내용 면에서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선군사상이라는 것도 붉은기철학처럼 어느 날 퇴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반면에 주체사상의 경우는 한 연구자가 적절히 표현하였듯이 “김정일정권이 존속하는 한” “주체사상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정성장 2006, 63).

2. 수사, 표현기법 상의 특징

먼저 지적할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 관련 문헌들이 매우 쉬운 문장과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면서 구사한 비유, 즉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손가락으로 먹든 저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김일성 1977, 155) 같은 말은 비유 자체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선동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리라. 그러나 북한 문헌이 지닌 장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독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이나 사상 철학을 다루는 문헌에서조차 지도자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자화자찬 격의 표현들이 너무 많다. 또한 어떤 내용을 소개할 때도 내용 소개에 앞서 이제 바야흐로 소개하려는 내용의 의의, 탁월함, 독창성 등 그 위대함에 대한 자화자찬 격의 평가부터 제시한다. 내용을 소개하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런 평가적 용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사용한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문헌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김정일의 1982년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경우도 예

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적(知的)으로 어느 정도 훈련된 독자라면 그런 것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독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오도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어법상의 문제와 용어의 오·남용이다. 1955년 ‘주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이 용어는 어법상 좀 어색하게 사용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주체란 무엇입니까?”라고 자문하고서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라고 자답하였다(김일성 1977, 146). 조선혁명은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나 과업이라고 말해야 어법상 틀리지 않는다.

그 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 주체는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마침내 1982년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저들이 말하는 전일적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원전 혹은 정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법상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즉 이 논문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지도적 원칙 3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원리’ 밑에 또 ‘원리’가 있고 또 그 밑에 ‘원칙’이 놓이게 된다. 논리 구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원리, 법칙(혹은 이론), 지침이라 각각 지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사회역사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 하면서도 곧바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김정일 1982, 18). 다른 사람의 영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면 도저히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주의’와 ‘사상’은 구분된다. 즉 주의는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상은 그것을 구체적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맑스-레닌주의는 주의이고 모택동사상은 사상이듯이 주체사상도 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와 함께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김일성주의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는 것인데(김정일 1976), 이것이 주체사상과 다른 것, 주체사상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체의 사상’과 주체사상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1982년 이후 주체사상은 그 안에 철학적 기초와 함께 이론(사회역사원리)과 방법(지도적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일성주의도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면 주체사상 역시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북한측을 위하여 좋게 해석해 준다면, 김일성주의를 언급한 시점이 체계화된 주체사상

이 나온 시점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것이다. 즉 김일성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시점에서의 주체사상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하는 4개 원칙 혹은 노선 수준의 것으로서 그 안에 철학, 이론, 방법은 아직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1982년 이전 시점에서는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주장하여도 무방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한 때나마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용어의 오용 내지 남용이라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오도된 연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도 ‘주의’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도 ‘주의’다. 영어판을 보면 조선민족제일주의는 “The Spirit of Korean-Nation-First”로 되어 있고 또 실제 내용을 봐도 ‘정신’이 맞다. 그렇다면 조선민족제일정신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기가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으므로 굳이 어법상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3대 제일주의 즉 경공업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만나면 도대체 경공업이 제일이라는 것인지 농업 아니면 무역이 제일이라는 것인지가 아리송하다. 이 역시 용어의 남용이라 할만하다.

철학이라는 말도 남용되고 있다. 주체사상 체계 안에 있는 철학은 세계관과 인간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동의하는 말든 일단은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철학’이라 할 만한 것이지만, 붉은기철학, 동지에철학, 총대철학, 선군철학 등에 이르면 철학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은 전혀 없다.

III. 김일성 시대의 이데올로기

1. 사상에서의 주체와 4개 원칙

‘주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였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당시 당내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비판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주체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을 가리킨다. 즉 ‘우리

식' 맑스-레닌주의인 것이다.

이 “우리 식”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정향을 지닌 것이었다. 김일성은 한국의 역사, 지리, 풍속과 전통을 강조하였으며 선배를 존중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국제주의자는 진정한 애국주의자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적 특성을 전면에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여러 해를 거치면서 ‘주체’는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1960대 후반에 이르러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것이 사상의 주체 등 4개 원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주체사상은 1970년에 개최된 5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승격되었다.

사상에서의 주체란 1955년에 제시된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정치에서의 자주와 국방에서의 자립도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경제에서의 자립은 주의를 요한다. 간혹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폐쇄경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김일성 자신이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에도 문제없다 이런 원칙”이라고 한다(김일성 1977, 208). 결국 자립이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소련의 원조 중단과 서방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가진 것이다.

4개 원칙으로서 주체사상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즉 우리식 수준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이라기보다 노선 혹은 정책기조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며, 그 골자는 민족주의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2. 철학적 원리와 전일적 체계

주체사상에 철학적 원리라는 것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다. 1972년 일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1974년 호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일성 1977, 564-565).

이때부터 주체사상은 단순히 ‘적용’ 수준이 아니라 그 나름의 철학적 기초를 갖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철학적 기초가 다듬어지기까지는 근 10년의 세

월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던 많은 용어, 개념, 발상들이 이 기간에 종합되고 하나의 체계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김정일의 1982년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주체사상은 이제 전일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주장되었다.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유일한 원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논문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이 그것이다. 철학적 원리란 사람중심의 철학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본성과 지위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라 한다. 사회역사원리는 4개 명제로 구성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지도적 원칙은 다시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먼저 자주적 입장은 앞서의 4개 원칙을 담고 있으며, 창조적 방법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며, 사상 우선에서는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사상은 이제 맑스-레닌주의의 적용이 아니라 그 계승·발전 혹은 계승·혁신이라 주장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전통 유교가 그러하듯이 유물론적이거나 변증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철학적 원리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하지만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사람중심의 사고에 이미 태고 적부터 익숙해져 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알려진 홍익인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나중 에 들어 온 불교와 유교 역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나온 것이 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주체사상은 전통 유교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주체사상이 그리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김일성의 이미지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같은 것은 현저히 유교적인 것이고 또 권위주의적 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르러 주체사상은, 비록 북한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19세기 이래 잦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 온 한국인의 경험에서 성장한 북한 판 한국민족주의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³⁾ 1986년에는 김정일 자신이 우리민족제 일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이 시점을 고비로 주체사상은 숨겨진 민족

주의사상에서 드러난 민족주의사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여긴다.

IV.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담론들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

주체사상은 처음부터 민족주의적 정향을 지닌 것이었지만 오랜 기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필요한 경우 그것은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그러했듯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 김정일은 갑자기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당시는 단지 그런 용어를 언급한 데 그쳤지만 3년 뒤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인민이 자기 민족을 세상에 제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제일주의의 근거를 제시하였다(김정일 1989, 450-451).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2년 뒤 김일성이 그 거리를 좁혀주었다. 1991년에 김일성은 민족이 계급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를 구분하고서 그 자신은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민족주의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데, 다시 민족의 이익이란 자주, 발전, 번영, 민족단결 등이라 한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체제와 전체 사회가 바로 이 진정한 민족주의 원칙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이 원칙은 통일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로동신문 1991/08/01).

3) 주체사상의 평가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1993, 169-193; 브루스 커밍스 1988, 5; 스즈키 마사유키 1994, 188-189 참조.

이 진정한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이로부터 6년 뒤인 1997년에 김정일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내용의 민족주의론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 전제하고서 주체성 고수에 대한 설명에 이어 “민족성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 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라 설명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특성이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 한다(김정일 1997a, 307, 315). 고수해야 할 민족성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1989년에 김정일이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의 근거 즉 위대한 수령의 영도 등에 비교하면 이것은 크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위대한 영도자와 그 후계자인 장군님은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었고 이들의 사상 즉 주체사상은 진정한 민족주의사상이 되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이르러 이들은 이미 크게 손상된 맑스-레닌주의의 권위나 매력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2.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래 묵은 용어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55년 연설에서 이미 김일성은 우리 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 식과 지금의 우리 식은 그 맥락이 좀 다른 것이다. 그 당시의 우리 식은 소련식이나 중국식과 대비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우리 식은 동구의 망한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우리 식이다.

동구 몰락 이후 북한 지도부는 동구 사회주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1991년 이후 몇 년간 이 주제에 관한 비중 있는 글을 적어도 7편 이상 썼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91년의 글에서 김정일은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데 있”다고 한다(김정일 1991, 41). 반면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다고 한다(김정일 1992, 276). 이렇게 하지 못한 까닭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맑스주의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한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역사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무장한 인민대중이다. 경제적 요인이 자동적으로 인민들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상개조를 통한 인간개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구의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지적한다. 다른 하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수정주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맑스주의의 혁명적 본질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 당의 강화, 당의 영도적 역할 및 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 강화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혁명적 원칙인데,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고 “이러한 수정주의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 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고 한다(김정일 1992, 282). 그 결과 노동계급 당 자체의 붕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⁴⁾

요컨대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를 바로 세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계획경제를 고수하였기 때문에 필승불패의 사회주의 요새로 되었고, 그렇지 못한 동구 사회주의는 몰락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곧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경제제도, 그리고 사회 전체를 가능한 한 고수하고자 한다는 사실, 개혁과 개방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4) 후일 선군 담론에서는 군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은 것도 사회주의 몰락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꼽는다.

3. 붉은기철학

현실이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요구한다면 위대한 령도자 겸 철학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붉은기철학이 나왔다.

붉은기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위 혁명가요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붉은기사상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의 로동신문 공동사설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용어만 쓰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 직후인 1월 9일자 로동신문은 ‘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짚막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붉은기철학은 김정일이 창시한 것으로서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철학,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의 철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1년 뒤인 1997년의 공동사설에서는 다시 ‘사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붉은기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사상에서 철학으로 갔다가 다시 사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정의는 ‘정신’으로 하고 있다. 붉은기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 거의 전부이고 우리가 사상이니 철학이라고 인정해 줄만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 이때 이후 약 2년간 붉은기철학이나 사상이 북한의 주요 문헌에 자주 등장하였지만, 1999년 이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내용이 아주 소략하고 용어사용에 극도의 혼란을 보이고 또 지금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한때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매체들이 붉은기에 대해서 한창 떠들고 있을 때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의 ‘주체철학의 독창성’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다. 이 붉은기 사건은 거의 하나의 해프닝 수준의 것으로서 아마도 하위 논자나 이데올로그들이 상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벌인 일이 아닌가 짐작된다.

4. 고난의 행군과 강성대국

김일성 사망 이후 몇 년간 북한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은 달리 의존할 것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보자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도자의 위대함, 주체사상, 우리 식 사회주의, 붉은기철학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언가 더 자극적인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난의 행군정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같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말 일본군의 대규모 게릴라 소탕작전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김일성 부대의 경험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된 용어였다. 그런데 1996년 로동신문 공동사설은 고난의 행군정신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뒤이어 김정일 자신이 고난의 행군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에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은 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휘하였던 수령옹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 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김정일 1996, 249-250). 그 후 이 구호는 적어도 2년간 북한 매체들을 수놓았다. 1998년 공동사설은 고난의 행군이 끝났음을 시사하면서 '사회주의강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것이 고난의 행군을 대체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1년 공동사설은 고난의 행군이 2000년에 끝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고난의 행군정신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20세기 말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며 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저 정신력으로 참고 버티는 것에만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구호나 수사는 더욱더 호전적, 전투적, 극단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오래된 유교전통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었다. '결사' 니 '총폭탄' 이니 '자폭' 이니 '충성' 이니 '도덕성' 이니 '의리' 니 '동지애'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 가운데서 동지애는 한때 '동지애철학'으로까지 승격되었지만(로동신문 2001/04/24), 그 이후 동지애철학은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고난의 행군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 1998년에 이르러 갑자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⁵⁾ 1998년 공동사설에 의하면 강성대국이란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말하는데, 강조점은 경제강국에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성대국은 가장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

5) "강성"은 그 내용으로 보아 한자로 强性이 아니라 强盛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영문 문헌들에서는 "a Great Prosperous Powerful Nation"이라 표기하고 있다.

나이다. 2007년 공동사설 역시 강성대국을 선군과 같은 수준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호일 뿐이지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를 내릴 만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은 아니다. 국내의 한 연구자는 한 때 강성대국이 주체사상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서재진 2002, 197-198), 그런 평가를 받을만한 알맹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구호는 알기 쉽게 말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공허한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가운데 강성대국이 나왔다는 사실은 1998년부터 북한의 어려움이 조금씩 완화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1999년 이후부터는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구호와 유교 용어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5. 선군

북한체제에서 군대의 지위는 매우 특별하다. 군대는 당과 정권기관이 창건되기 전에 먼저 창건되었으며 창군 이후 줄곧 체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 기둥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가 군을 중시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 지도부는 단순히 군 중시가 아니라 ‘선군’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언론 매체와 문헌들은 혁명적 군인정신, 선군정치, 선군노선, 선군사상, 선군철학, 총대철학 등 선군 관련 담론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1) 선군담론의 형성 과정

북한 문헌들은 선군의 기원을 김일성이 ‘타도’ (타도제국주의동맹)를 결성한 1926년까지 소급하고 있고, 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선군 정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 관련 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으로 보인다. 이 해 로동신문 공동사설은 군이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위업 완성의 주력군”이라고 한다. 같은 날 김정일은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총 한방 쏘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략)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이 불어 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국가도 당도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김정일 1997b, 276).

1997년 공동사설과 함께 여기서도 아직 선군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공동사설과 이 담화는 나중에 제시되는 선군 관련 담론의 기본 발상과 개념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즉 주력군, 총대중시, 군대가 곧 인민, 국가, 당이라는 발상 등이 그것이다. '선군'이라는 용어가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8년인데, 그 후 2000년 공동사설에서 선군정치와 총대중시사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2001년 공동사설에는 선군로선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2003년에는 김정일 자신이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사상"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군철학이라는 용어는 총대철학과 함께 2006년 공동사설에 처음 등장하였다.⁶⁾ 2007년 공동사설에서는 "지난해에 선군사상, 선군정치 승리의 만세소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선언하면서 선군을 핵심어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선군이란 과연 무엇인가?

2) 선군담론의 내용

2001년 공동사설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며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이후 선군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지만 체계와 알맹이를 동시에 갖춘 설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필자가 입수한 최근의 문헌에 의하면 선군사상은 두 개의 '기본원리'와 한 개의 '주요원칙'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본원리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혁명원리"이며, 두 번째 기본원리는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혁명원리"이다(최영송 2006a). 그리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이 제시하는 선군의 주

6) "선군"의 형성과정에 대한 상세하고 탁월한 조사는 권오중 2002, 전미영 2006 참조.

요원칙은 선군후로이다. 선군후로란 글자 그대로 군대를 노동계급보다 앞자리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가장 힘 있는 기본력량으로 보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라고 한다(최영송 2006b).

과장된 수사를 걷어내고 알맹이만 추리면 선군사상이란 정권유지를 위하여 총대를 중시한다는 것, 군대가 없으면 인민도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군이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판단 이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한다. 그 골자를 추리면 대강 이렇다. 현 시대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며 제국주의와 맞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주성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여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최성학 2002). 최근의 한 문헌은 자주성 외에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을 또 다른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즉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선군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 운명공동체에 관한 원리는 주체사상에 의해 밝혀진 것이고 또 그것이 구현되어 운명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김진옥 2007a).

이런 설명은 논리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선군후로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체 혹은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노동계급과 인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회역사의 주체인 인민 혹은 인민대중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지식인과 사무원, 문화예술인, 군 장병, 심지어 양심적인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민과 노동계급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선군사상이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군대를 노동계급 앞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한 연구자가 적절히 주장하였듯이 “주체사상의 본질적 요소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오일환 2006, 102). 김정일 자신도 선군후로를 “선군정치의 독창성”이라 표현함으로써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전미영 2006, 26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당 우선의 입장을 확실히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해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시점에서는 “당과 군대가 서열상 누가 선차나 할 때 당이 앞자리에 놓이며 따라서 군대는 그 위상이

당군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못박았다(김철우 2000, 2). 그러나 최근의 한 문헌은 당과 군대는 혼연일체, 불가분의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 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된다”는 점과 “군대는 혁명정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 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김진옥 2007b).

3) 평가와 함의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제시된 선군 관련 담론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선군이란 간단히 말해서 정권과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총대와 군대가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노동계급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당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것이다.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서 무슨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은 마치 붉은기철학처럼 용어의 남용이다. 그저 군 중시의 노선 혹은 정책기조라거나, 김정일 자신이 한 때 애용했던 대로 그의 기본적인 ‘정치방식’⁷⁾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자주성과 운명공동체 개념을 연결고리로 하는 주체사상과의 관계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의 선군담론은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한 참 못 미치는, 붉은기철학, 고난의 행군정신, 강성대국 등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주체사상의 ‘변용담론’ 혹은 ‘하위담론’⁸⁾이라 할 수 있다. 단, 주력군 개념이나 선군후로는 확실히 주체사상과 충돌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앞으로 북한 이데올로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 쉽지 않은 숙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정권기관 내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 권력 핵심부에 군부 인물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지도가 증가하였다는 점 등 현실정치 면에서 선군이 지니는 의미는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주체사상이 그러하였듯이 지금은 유치한 수준이지만 장차 더욱 세련되고 풍부한 내용을 갖춘 그럴듯한 ‘사상’이나 ‘철학’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은 ‘맹아’(전미영 2006, 22) 이상의 것으로 봐주기는 어렵다.

7) 영어로는 “basic political style”이라 번역한다. 로동신문 99/01/01.

8) 이 표현들은 정우곤 2001; 배성인 2001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선군사상을 측정하면 그렇다고 한다. 세 가지 지표란 새로운 사상이 주체사상처럼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는가 여부, 전국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일색화운동 전개 여부와 지도적 지침으로 인정받았는가 여부, 그리고 주체사상 내용 중에서 어떤 본질적 요소의 변화가 수반되었는가 여부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필자가 읽기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이다) 지표에서 모두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므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의 대체 이데올로기라는 결론을 내린다(이기동 2006, 120-130).

전국적 차원에서 선군사상 교양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군후로는 주체사상의 본질적 요소에서의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체사상처럼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 그가 인용한 북한 문헌은 선군사상이 총대 ‘철학’, 정치 ‘이론’ 그리고 정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그렇다는 주장일 뿐이지 알맹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성을 위하여 총대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최고로 평가해 주어도 고작 ‘노선’ 정도이고 최하로 평가하면 ‘정책우선순위’일 뿐인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철학’이 될 수 있을까? ‘이론’과 ‘방식’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그저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나 글자 그대로 방식에 불과한 것들이다. 1982년에 체제화된 주체사상에 비교할 때 선군사상은 그 근처에도 못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적 지침’과 관련하여서는 이 연구자가 단순히 ‘지도사상’이라는 용어와 ‘지침’이라는 용어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양자를 혼동한 데서 나온 실수가 아닌가 싶다. 지침이 어떻게 지도사상을 대신할 수 있을까? 따라서 아직은 ‘맹아’ 수준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선군사상이 함축하는 의미는 우선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곧바로 군대의 무력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총한방 쏘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김정일의 지적은 매우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무력 사용의 대상은 국내의 저항세력일 수도 있고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당면의 경제난과 “미제의 포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으

로 군대식의 규율과 기강 그리고 조직 원리를 전 사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 고난의 행군도 그렇지만 '혁명적 군인정신'은 그런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의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즉 우리 식에서 출발하여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체계화되어 1982년에 맑스-레닌주의의 계승·발전으로 일단 완성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그 민족주의적 특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이 사상은 1970년에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 지도사상,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된 이래 지금도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부터 붉은기철학,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을 거쳐 선군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담론들은 그 과장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적 사상이 아니라 단순한 구호이거나 주체사상의 변용담론 혹은 하위담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뿌리를 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주체사상을 대체한다거나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북한 지도부가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내놓은 담론일 뿐이다. 선군담론의 경우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부분도 있고 주체사상과 충돌되는 부분, 새로운 부분도 있다. 또한 이미 10년에 가까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타의 담론들과는 달리 앞으로 새로운 사상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는 그저 김정일의 '정치방식' 혹은 통치스타일로서 새로운 사상의 맹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처한 내외의 환경과 그것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및 대응방향을 많은 적든 담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현실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세계질서는 북한 측에게 더욱 불리하게 편성되고 있으며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 직면한 주체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지도부는 가능하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대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내외의 환경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기 위해서는 핵무기도 필요하겠지만 고난의 행군도 필요하고 강성대국의 청사진도 필요하고 또 선군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관측이 타당하다면 북한 지도부의 기본자세는 이습우화에 나오는 길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모자를 눌러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관적 의지와 별도로 언제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답문 수준에서 이미 '신사고' 나 '실리사회주의' 나 하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왕에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의 것일지는 모르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분석의 결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 시기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의 경직된 자세를 완화시켜 교류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유효성은 유지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중. 2002. “북한 ‘선군정치’의 등장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갑식. 2006.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311-340. 서울: 경인문화사.
- 김근식. 2006.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251-278. 서울: 경인문화사.
- 김연각. 1993.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6. “북한 국가 성격: 기존 논의의 검토와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89-112.
- 김일성. 1977.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76.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옹계 인식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5』, 321-

- 328.
- _____. 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9. “조선민족제일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9』, 443-468.
- _____. 1991.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11』, 40-80.
- _____. 1992.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275-310
- _____. 1996.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김정일선집 14』, 249-252.
- _____. 1997a.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 306-332.
- _____. 1997b.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4』, 253-480
- 김진옥. 2007a. “선군의 원리가 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가.”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7/2007-02-05(검색일: 2007. 2. 15).
- _____. 2007b.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당과 군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7/2007-02-07(검색일: 2007. 2. 15).
- 김철우. 200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 배성인. 2001.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5권 1호, 31-55.
- 브루스 커밍스. 1988. “북한의 조합주의.” 梶村秀樹 외 저 김동춘 역. 『한국현대사연구 I』, 324-355. 서울: 이성과 현실.
- 서재진. 2002.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으로.” 『북한』 통권 제365호, 194-198.
- 스즈키 마사유키 저·유영구 역.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 이기동. 2006.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113-137. 서울: 경인문화사.
- 오일환. 2006. “북한 선군정치의 현황과 쟁점 분석.” 『아태 쟁점과 연구』 2006 봄, 95-118.
- 이창현. 2006.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대외 정책적 함의.” 『정치·정보연구』 9권 1호, 285-303.

- 장달중. 2004. “김정일체제의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장달중 외, 『김정일체제의 북한: 정치, 외교, 경제, 사상』, 9-58. 서울: 아연출판부.
- 전미영. 2006.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정성장. 2006. “주체사상의 형성·변화와 논리체계.”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9-77. 서울: 경인문화사.
- 정우곤. 2001. “주체사상의 변용담론과 그 원인: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철학,' '강성대국' 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5권 1호, 5-30.
- 조영국. 2006. “'강성대국론' 과 '선군정치' 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41-79.
- 최성학. 2002.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논문 1』, 14-16.
- 최영송. 2006a. “선군사상의 기본원리.”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6/2006-07-18(검색일: 2007. 2. 15).
- _____. 2006b. “선군후로는 선군혁명의 주요원칙.”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6/2006-11-24(검색일: 2007. 2. 15).
- 최완규. 2006.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341-371. 서울: 경인문화사.
- Friedrich, C., and Brezezinski, Z. K. 1965.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archy*. New York: Praeger.
- Linz, J. J.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Greenstein, F. I. and Polsby, N. 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Reading: Addison-Wesley.
- Schapiro, L. 1972. *Totalitarianism*. London: The Pall Mall Press.

ABSTRACT

North Korean Political Ideology: 1955~2007

Yeon-Gak Kim | Seowon University

Political ideology is still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North Korean politics. However it does not attract much attention among outside watchers. And the existing studies on this subject have some flaw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dress this situation by analyzing and assessing the whol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ideological development. As a results, the author argues that the Juche Idea,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nationalism, is still the one and only guiding idea of North Korea; all the other slogans or ideas newly raised by Kim Jong Il or his propagandists, including the Army-First Idea, are nothing more than mere slogans or, at best, very primitive ideas; the North Korean leaders show very strong will to maintain their existing system at any cost and even by using firearms of the army; and to this extent the Sunshine Policy of the South Korea should be maintained.

Keywords: North Korea, political ideology, the Juche Idea, Kim Jong Il, the Army-First Idea